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3년 04월 17일
감 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5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15,489달러/일 기록, 사이클론으로 호주 주요 철광석 수출 터미널 운영 차질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76.7p 상승한 1,033.7p를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15.6p 하락한 52.6 기록, 원유시장 변동성 확대되며 시황 약세 지속

황수진 해운시장연구 센터장 / zin@kmi.re.kr | 051-797-4635

윤재웅 부연구위원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류희영 전문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해운금융연구 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친환경 연료 사용을 위해서는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필요

- ▶ 2022년 하반기부터 신조 발주가 증가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의 비용 구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현재까지 68척의 메탄올 추진선이 발주되었고 곧 메탄올 연료 공급선이 인도되는 등 미래 친환경 연료로 메탄올이 선호됨
 - 하지만 그린 메탄올에 대한 수급 문제, 선사 및 화주가 부담 가능한 비용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 ▶ 그린메탄올 사용시 비용을 높아질 수밖에 없으나 최적화를 통해 상승폭은 줄일 수 있음
 -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자료에 따르면 그린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 아시아-유럽 1항차(왕복)에 슬롯(slot)당 소요되는 비용이 1,410~2,000달러로 추정됨
 - 이는 현재 15,000TEU 기준 1항차에 슬롯 당 비용인 1,100달러에 비해 크게 높으나 폐열회수, 저속운항, 최적선형 변경 등으로 비용 상승을 낮출 수 있음
 - ABS는 선대 최적화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그린 메탄올 사용에 불구하고 슬롯 당 비용은 1,214달러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함
 - 아울러 친환경 연료 사용이 선사나 화주의 비용이 아닌 탈탄소로 가기 위한 투자로 인식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4734/Methanol-fuelled-boxships-can-be-economically-viable>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미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회복세 더더

- ▶ 선사들은 최근 급격한 컨테이너 수요 감소 이후 정상적인 수준까지 수요가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재고 수치는 컨테이너 수요 회복 둔화를 시사하고 있음
 -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및 해켓(Hackett Associates)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주요 12개 항만의 '컨' 수입량은 전년 대비 28.2% 감소한 168만 TEU를 기록함
 - 컨테이너 수요가 팬데믹 시기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으나 북미 서부 항만 지역에서 감소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북미 서부 항만의 노조 협상 지연으로 항만 혼잡에 대한 우려가 화주들의 화물을 북미 동부 및 걸프 연안 항만으로 이전시켜 북미 서안 항만의 시장 점유율 감소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음
 - 북미 동부 및 걸프 연안 주요 항만인 뉴욕, 뉴저지, 사바나, 휴스턴, 버지니아, 찰스턴항의 1~2월 '컨'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8%, 17.9% 각각 감소하였지만, 팬데믹 이전 2019년 대비 11.7%, 14.2% 각각 증가함
 - 반면 북미 서부 주요 항만인 LA/LB, 오클랜드, 시애틀, 타코마 항만의 1~2월 '컨'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9, 37.1% 각각 감소하였으며, 팬데믹 이전 시점인 2019년 대비 또한 19.0%, 21.4% 각각 감소함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4642/Rising-US-imports-to-remain-below-pandemic-highs>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중국의 3월 석탄 수입량, 3년 만에 최대치 기록

- ▶ 전력 수요 회복의 기대가 중국의 발전소의 석탄 수입량이 증가로 이어짐과 더불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3월의 석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4,117만 톤을 기록함. 이는 올해 1~2월의 월간 수입량인 3,032만 톤과 대비되는 수치이며, 2020년 1월 이래로 사상 최대치임
 - 올해 1분기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1억 18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함.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해제에 관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2분기 중국의 석탄 수입량 역시 1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kg당 발열량이 5,500kcal인 발전용 석탄은 중국 북부 항만인 칭황다오(Qinhuangdao)에서 톤당 152.76달러에 자국 석탄이 거래되나, 호주산 발전용 석탄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톤당 120달러임. 이러한 석탄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3월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량이 증가함
 - 라마단 기간에 앞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 및 수출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3월 중순의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기 인도네시아산 석탄 확충하고자 함
- ▶ 중국 남부의 악한 발전량이 화력 발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몇 달간 발전용 석탄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산샤댐(Three Gorges Dam)의 4월 첫째 주 수위 및 대기전력은 5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의 올해 남서부 4월 첫째 주 강수량 역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다만 중국 북부 지역의 겨울 난방 수요가 감소했으며, 여름 에어컨 수요가 촉진되지 않아 자국 내 석탄 소비가 현재 비수기를 맞이함. 이에 따라 향후 중국과 해외의 석탄 가격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https://www.reuters.com/article/china-economy-trade-coal-idUSL1N36G06X>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서호주, 강력한 폭풍으로 케이프선 시황에 악영향

- ▶ 4급 허리케인인 사이클론 일사(Ilsa)가 서호주 연안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적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서호주 헤들랜드(Hedland)항은 5억 5,660만 톤의 화물을 선적하는 호주 최대의 수출항이며, 화물 대부분은 케이프선에 의해 수출됨
 - 태평양횡단 항로에 대응하는 선박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대서양으로 향하는 밸라스팅(ballasting)을 실시할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향후 헤들랜드항은 폐쇄될 것으로 보임
 - S&P글로벌(S&P Global)에 따르면 서호주(헤들랜드)-중국(칭다오) 항로를 이용해 철광석을 수출하는 케이프선의 4월 11일 운임은 톤당 8달러로 전일 대비 톤당 50센트 하락함
- ▶ 이러한 태풍의 영향으로 일부 선주 및 운항 관리자는 호주 동부 해안을 이용해 석탄을 수출하거나 브라질로 향하는 밸라스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안을 모색 중임

자료: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latest-news/shipping/041223-cyclone-in-western-australia-weighs-on-capesize-freight-rates-threatens-cargo-loadings>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OPEC+의 감산에도 제3산유국들의 증산이 유가 급등 방지 역할

- ▶ 주요 산유국들이 전년도 10월부터 원유 감산에 돌입했으나 이란, 카자흐스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제3의 산유국들이 원유를 증산하며 시장 충격을 막는 완충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9월 이후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은 평균 130만 b/d로 35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는 사우디의 감산량인 약 50만 배럴의 절반 이상을 상쇄할 수 있는 물량임
 - 이란 또한 작년 9월 이후 산유량이 20만 배럴, 카자흐스탄은 24만 배럴 증가함. 브라질은 작년 9월 이후 생산량을 증가시켜 올해 1월에는 사상 최대치의 산유량을 기록함
- ▶ 이는 지난해 10월 주요 산유국이 감산을 선언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OPEC+가 감산을 발표하며 유가 상승이 촉발됨
 - WSJ는 추후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소규모 생산국에 달려있으며 특히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가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UBS그룹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는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증산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란은 산유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분석함

자료: <https://www.wsj.com/articles/saudi-arabia-led-oil-cuts-run-into-gusher-of-alternative-supplies-3fb9953f>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사우디 아람코, OPEC+ 추가 감산 결정에도 5월 아시아 국가 원유 공급계획 보장

-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는 이번 감산과 무관하게 아시아 국가에 대한 5월 계약분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로이터에 의하면 아람코가 5월부터 50만b/d 감산에 들어갈 예정나, 북아시아 최소 4개 국가에 대해서는 5월 계약물량을 전량 공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UAE 국영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또한 아시아의 최소 3개 고객사에 6월까지의 계약 물량을 모두 공급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 OPEC+의 감산 발표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지역인 아시아에 대한 공급물량 축소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아람코의 월별 배정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옴
 - OPEC+가 5월부터 연말까지 116만bpd 감산을 결정한 직후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추가 감산 발표의 영향으로 전주 6% 상승함
 - 향후 OPEC+의 기습 감산 여파가 실질적인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유가 부양을 위한 것일지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saudi-aramco-supply-full-oil-volumes-some-asian-refiners-may-sources-2023-04-10/>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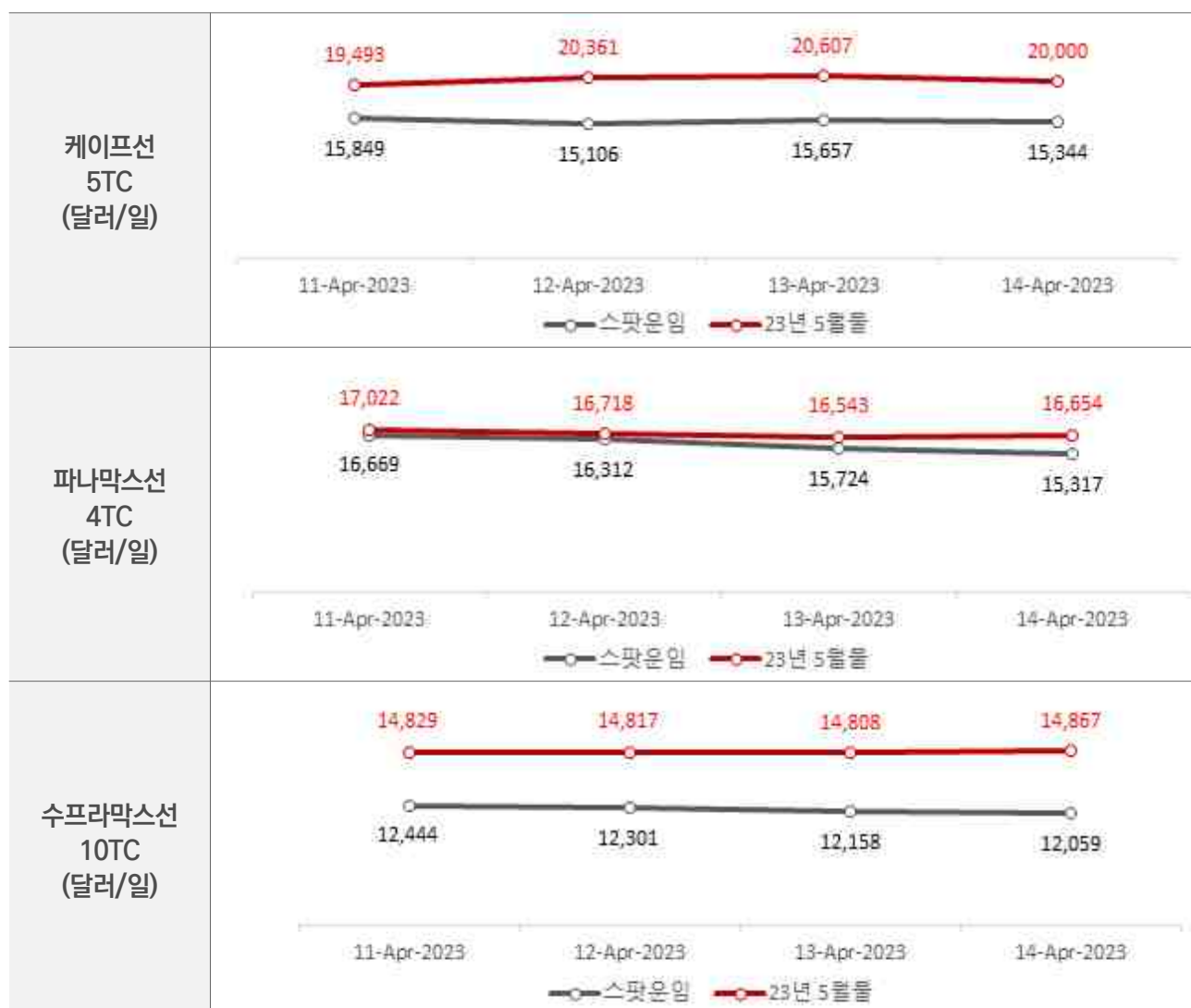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4월 2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5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5,489	▼ -245	-1.6 %	20,115 ▼ -1,640 -7.5 %
파나마선 5TC (달러/일)	16,006	▲ 140	0.9 %	16,734 ▼ -1,733 -9.4 %
수프라막선 10TC (달러/일)	12,241	▼ -668	-5.2 %	14,830 ▼ -898 -5.7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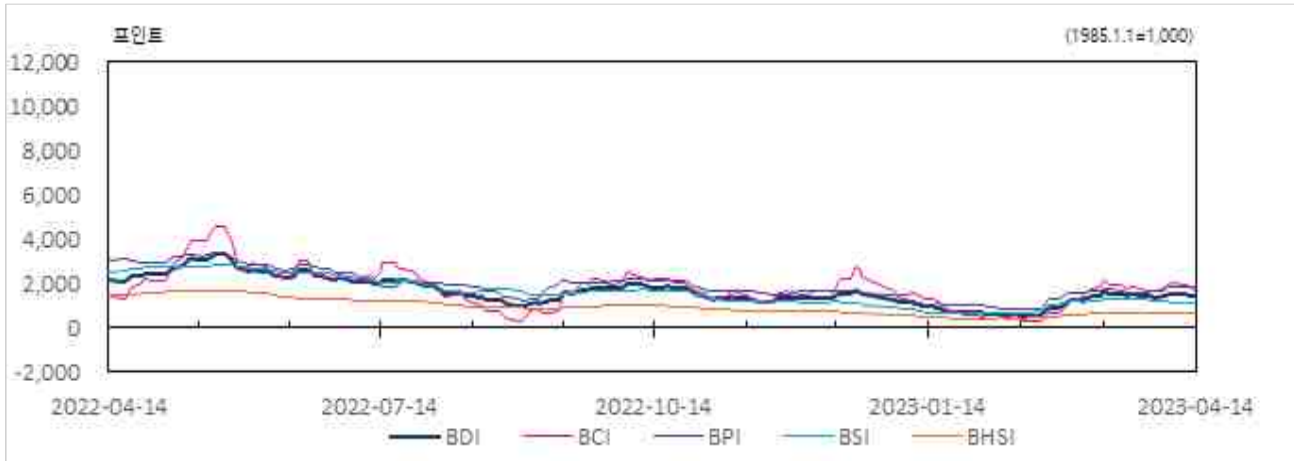
1) 4월 2주 주간 평균은 4월 11일부터 14일 데이터 사용. 4월 10일 데이터 미공시

2) 4월 1주 주간 평균은 4월 3일부터 4월 6일 데이터 사용. 4월 7일 데이터 미공시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4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운임지수	BDI	1,467	▼ -26	530	1,603	1,063	965	3,369	1,934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5,489	▼ -245	2,246	17,500	9,863	2,505	38,169	16,177
	파나막스(5TC)	16,006	▲ 140	7,277	16,669	11,838	10,956	30,746	20,736
	수프라막스(10TC)	12,241	▼ -668	6,874	14,703	10,438	11,685	33,366	22,152
	핸디(7TC)	11,352	▼ -538	7,763	12,703	9,915	11,941	32,166	21,337
1년 용선료	케이프	20,000	- -	15,125	19,750	17,133	10,125	23,000	16,591
	파나막스	18,125	▼ -625	12,500	14,125	13,185	9,625	16,125	12,537
	수프라막스	15,500	▼ -375	9,875	10,625	10,371	8,250	12,500	10,356
	핸디	12,125	▼ -1,000	8,063	8,750	8,492	7,313	9,250	8,435
건화물선 시장(FFA)									
		5월물		3분기물		2023년물		2024년물	
		4월 2주	전주대비	4월 2주	전주대비	4월 2주	전주대비	4월 2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20,115	▼ -1,640	23,142	▼ -638	16,324	▼ -271	16,371	▼ -243
	파나막스(5TC)	16,734	▼ -1,733	17,882	▼ -679	14,690	▼ -211	14,690	▼ -211
	수프라막스(10TC)	14,830	▼ -898	16,208	▼ -498	13,368	▼ -171	12,835	▼ -130
	핸디(7TC)	13,391	▼ -811	14,482	▼ -325	12,705	▼ -145	12,388	▼ -61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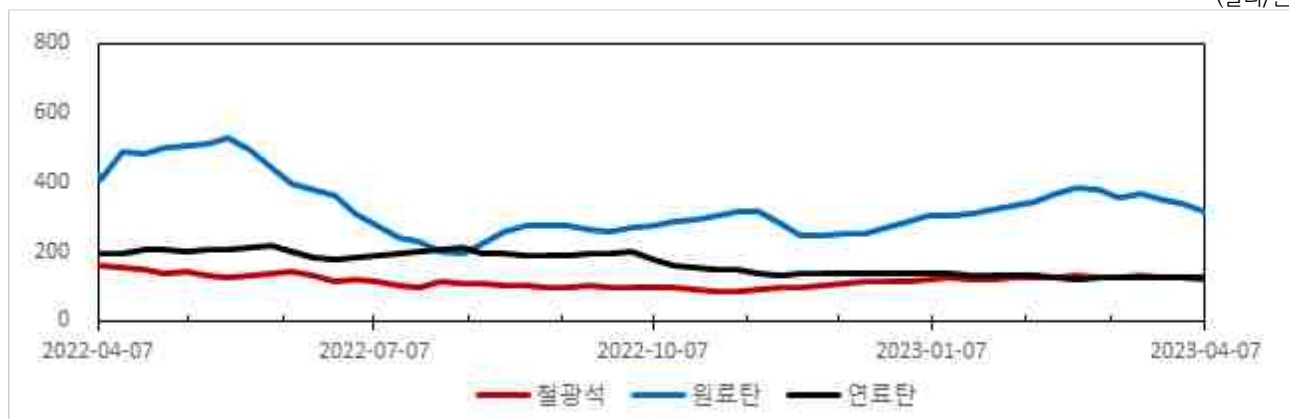
구분	2023년		전주 대비 차이			2022년			
	4월 2주	4월 1주				4월 2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19.5	120.5	▼ -1.0	-0.8	%	159.3	120.3	82.4	159.8
원료탄	294.0	313.1	▼ -19.1	-6.1	%	405.0	365.0	196.1	670.1
연료탄	121.6	123.3	▼ -1.7	-1.3	%	192.2	179.1	107.5	288.2
대두	550.4	555.1	▼ -4.7	-0.8	%	601.7	569.4	503.5	638.0
옥수수	258.2	256.7	▲ 1.6	0.6	%	298.7	273.1	231.6	319.9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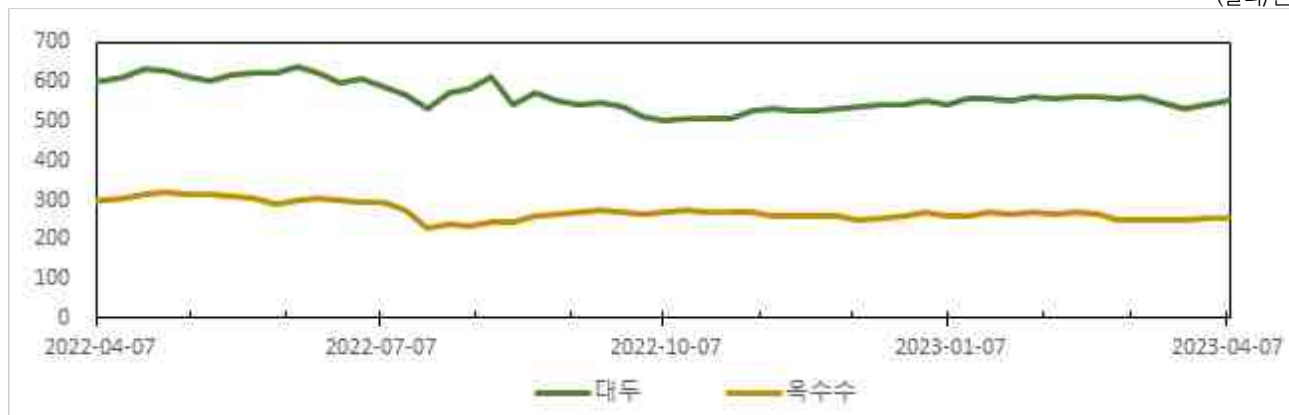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Ⅰ 케이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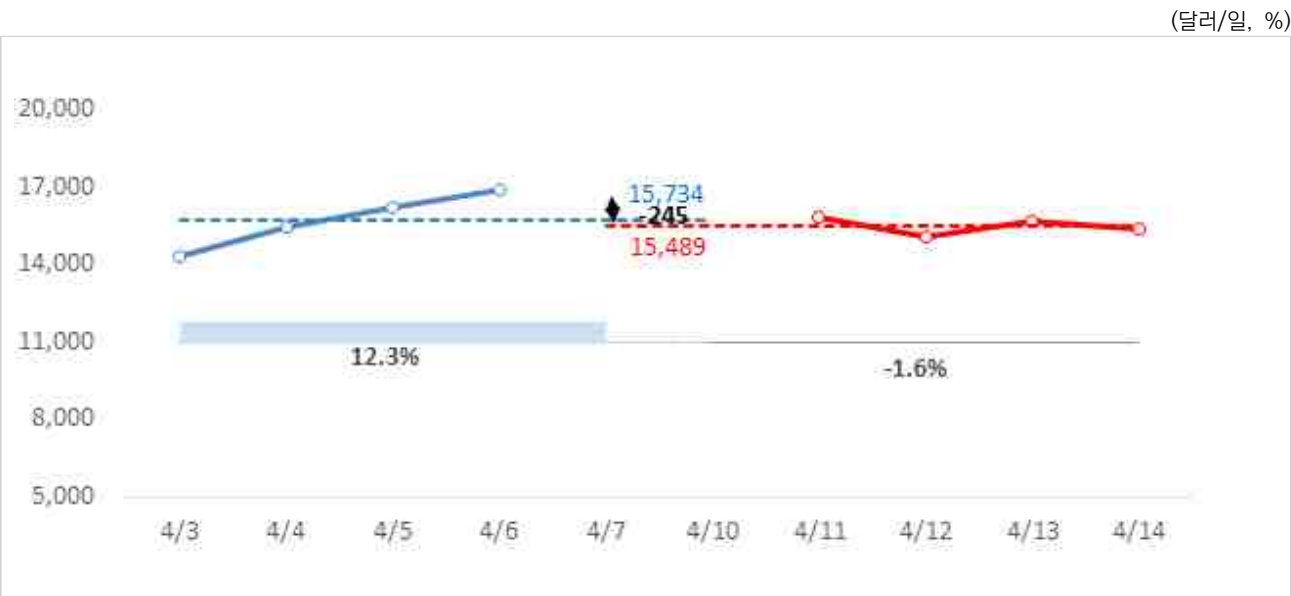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4월 1주) 대비 1.6% 하락한 15,489달러/일을 기록함

- 호주에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인해 운임이 소폭 하락함

(동향) 사이클론으로 호주 주요 철광석 터미널 운영 차질

- 호주에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열대성 사이클론인 일사(Ilsa)가 상륙해 철광석 광산 작업 중단 및 주요 철광석 수출터미널인 포트헤들랜드(Port Healand)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
- 지난 4월 10일 호주 항만청(PPA, Pilbara Ports Authority)은 사이클론으로 인해 포트헤들랜드의 운영을 13일 까지 중단했으며, 14일에 수로 및 선석에 대한 안전 검사 수행 후 운영을 재개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4월 2주	4월 1주	전주대비차이	
BCI		1,868	1,897	▼ -29	-1.5%
스팟운임(5TC)		15,489	15,734	▼ -245	-1.6%
용선료	6개월	24,500	24,750	▼ -250	-1.0%
	1년	20,000	20,000	- 0	0.0%
	5년	17,375	17,625	▼ -250	-1.4%
FFA	5월물	20,115	21,756	▼ -1,640	-7.5%
	3분기물	23,142	23,780	▼ -638	-2.7%
	23년	16,324	16,594	▼ -271	-1.6%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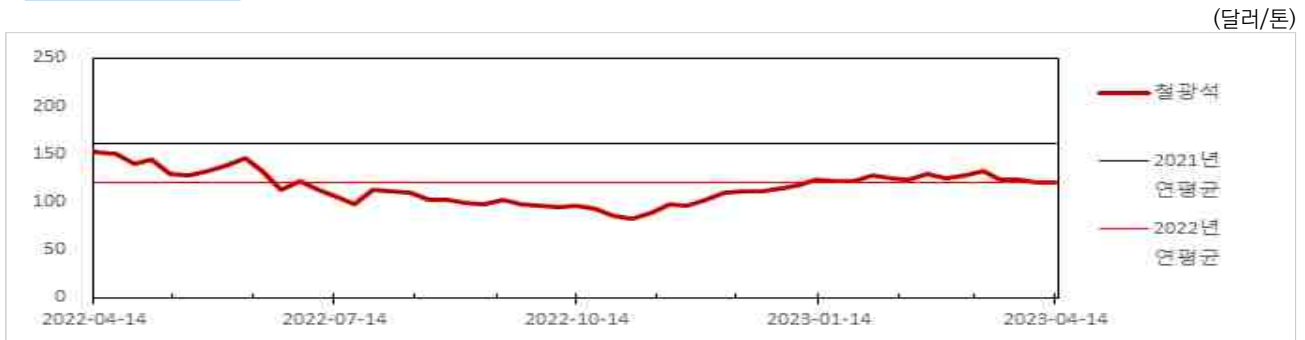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전주 대비 0.8% 하락한 119.5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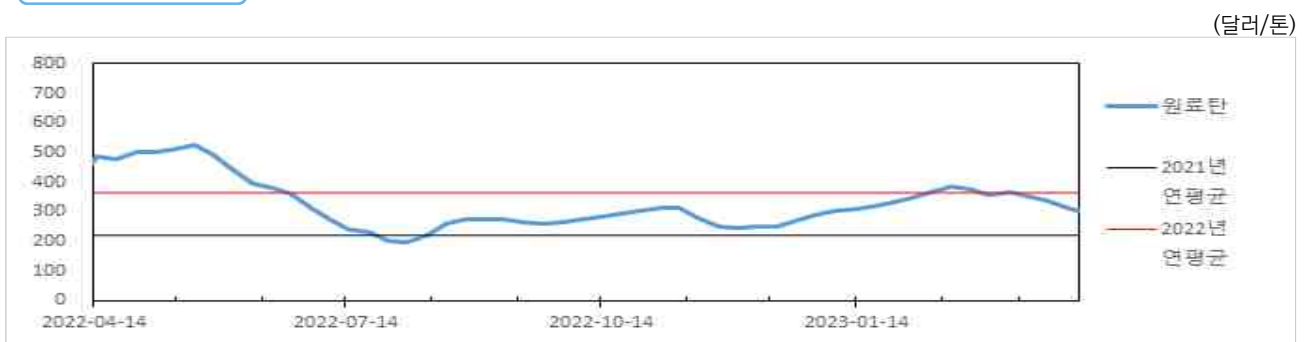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달러/톤)

구분	철광석 가격	전주대비차이		
3월 4주	122.7	▼	-9.1	-6.9 %
3월 5주	123.5	▲	0.8	0.7 %
4월 1주	120.5	▼	-3.0	-2.4 %
4월 2주	119.5	▼	-1.0	-0.8 %

■ 원료탄 가격 : 전주 대비 6.1% 하락한 294.0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자료: Clarkson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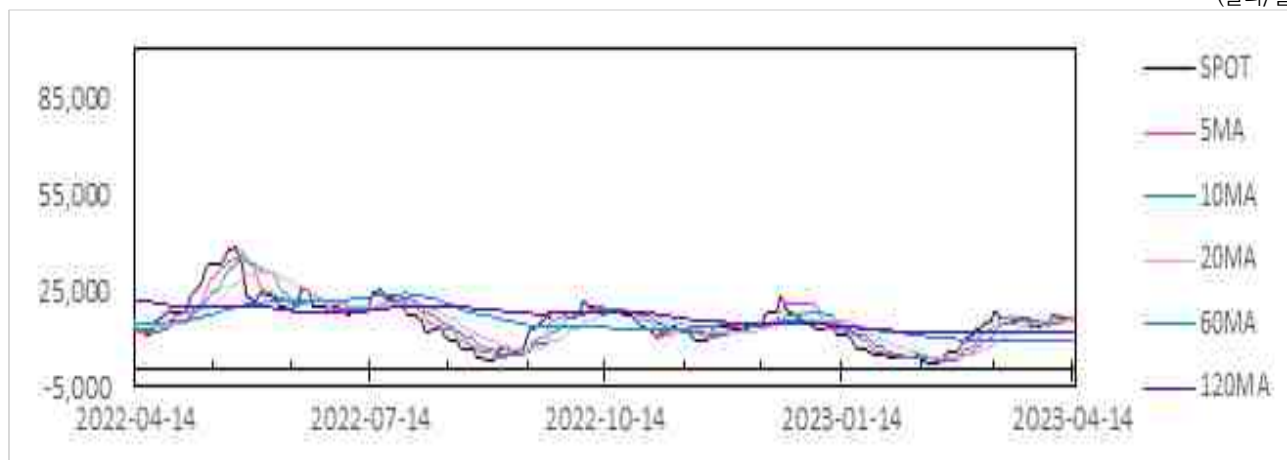
구분	원료탄 가격	전주대비차이		
3월 4주	350.8	▼	-15.4	-4.2 %
3월 5주	337.2	▼	-13.6	-3.9 %
4월 1주	313.1	▼	-24.2	-7.2 %
4월 2주	294.0	▼	-19.1	-6.1 %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I 파나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0.9% 상승한 16,006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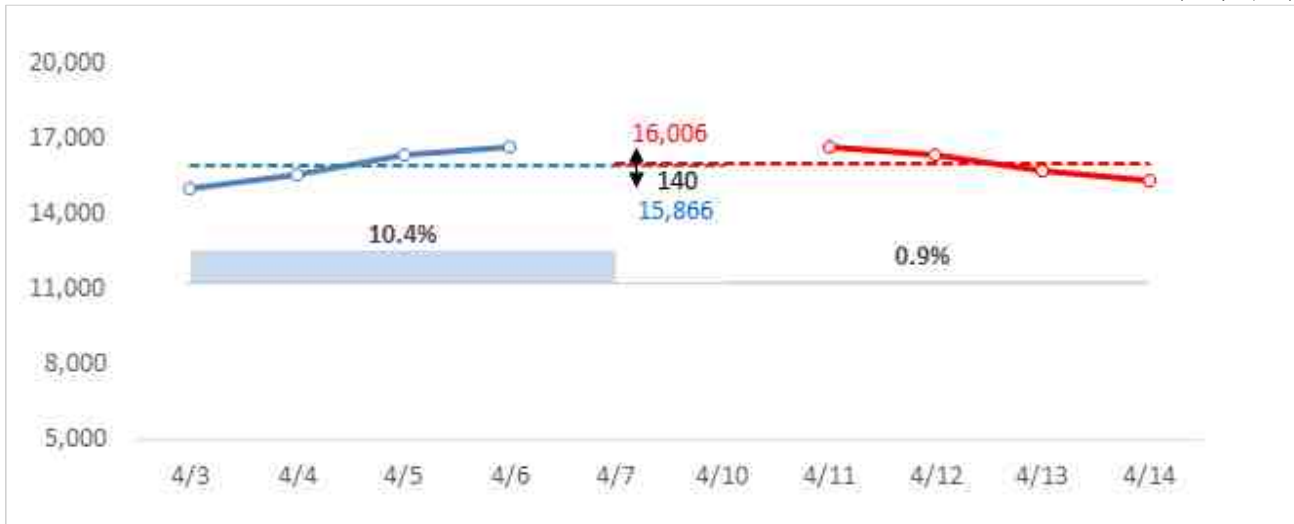
- 부활절 연휴 영향으로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함

(동향) 중국,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 착수

-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80.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2020년 결정에 대해 향후 3~4개월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이 관세 부과를 완화 또는 철회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고율 관세 부과가 결정된 이후에 보리에 대한 무역패턴이 변화해 톤-마일 수요가 증가한 바 있음. 중국은 호주산 보리를 대신해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산을, 중동에서 호주산 보리를 수입하는 패턴을 보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4월 2주	4월 1주	전주대비차이		
BPI		1,778	1,763	▲	15	0.9 %
스팟운임(5TC)		16,006	15,866	▲	140	0.9 %
용선료	6개월	19,125	19,500	▼	-375	-1.9 %
	1년	18,125	18,750	▼	-625	-3.3 %
	5년	14,750	14,950	▼	-200	-1.3 %
FFA	5월물	16,734	18,468	▼	-1,733	-9.4 %
	3분기물	17,882	18,560	▼	-679	-3.7 %
	23년	14,690	14,901	▼	-211	-1.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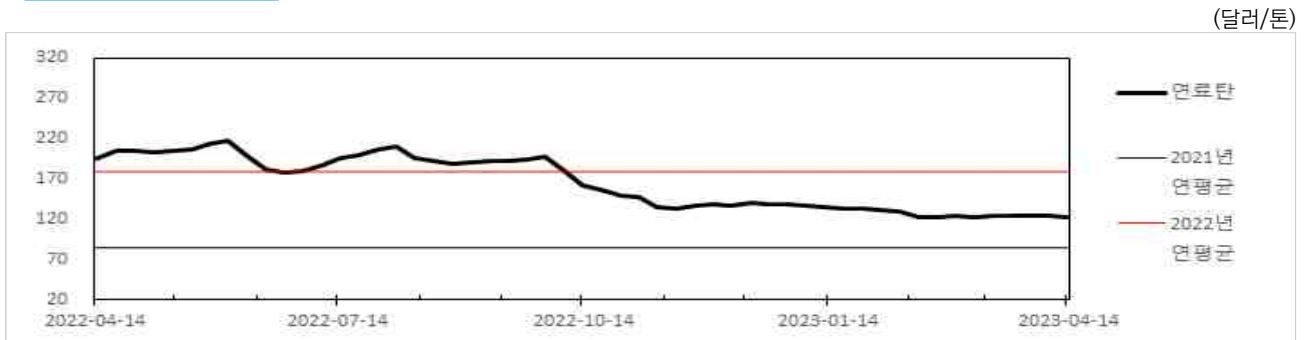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전주 대비 1.3% 하락한 121.6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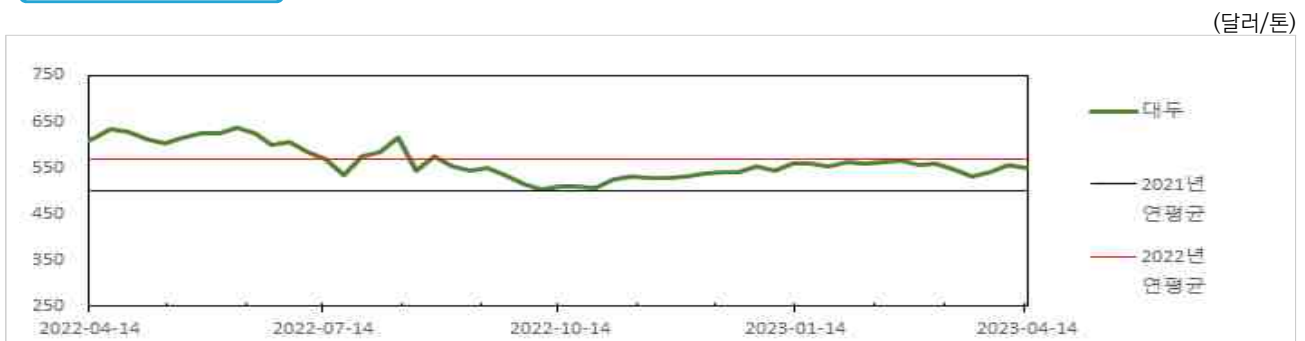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연료탄 가격	전주 대비 차이		
3월 4주	124.7	▲ 0.4	0.3	%
3월 5주	124.2	▼ -0.5	-0.4	%
4월 1주	123.3	▼ -0.9	-0.8	%
4월 2주	121.6	▼ -1.7	-1.3	%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전주 대비 0.8% 하락한 550.4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대두 가격	전주 대비 차이		
3월 4주	532.7	▼ -15.3	-2.8	%
3월 5주	541.4	▲ 8.7	1.6	%
4월 1주	555.1	▲ 13.7	2.5	%
4월 2주	550.4	▼ -4.7	-0.8	%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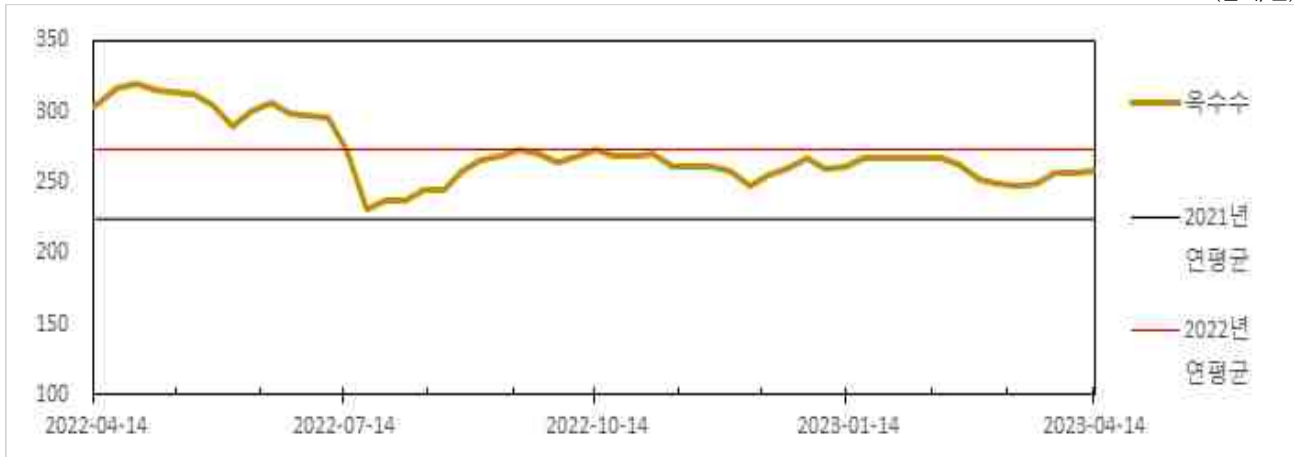


3 파나마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전주 대비 0.6% 상승한 258.2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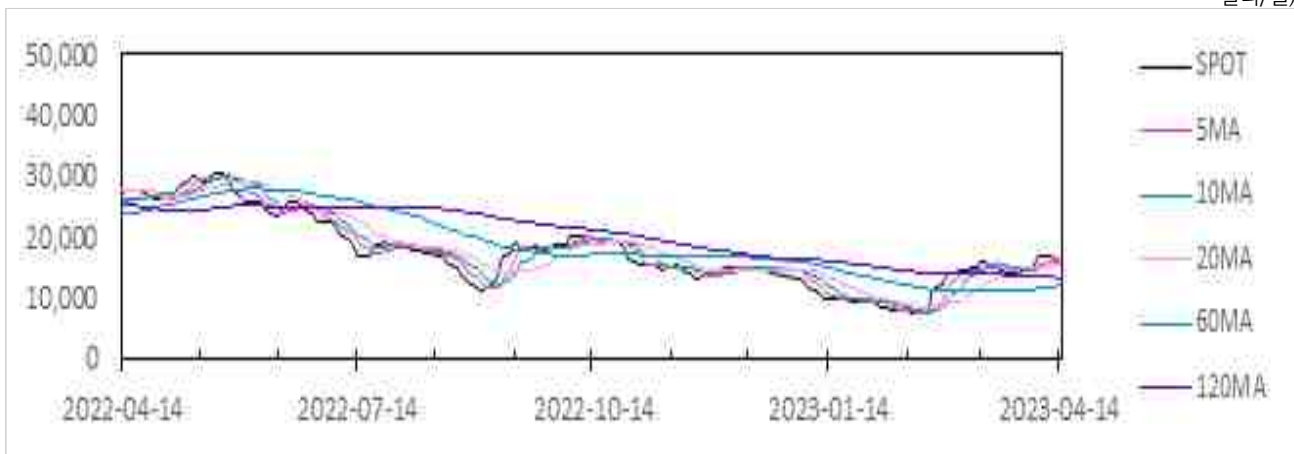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3월 4주	249.7	▲ 2.0	0.8	%	
3월 5주	256.4	▲ 6.7	2.7	%	
4월 1주	256.7	▲ 0.3	0.1	%	
4월 2주	258.2	▲ 1.6	0.6	%	

3 파나마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수프라막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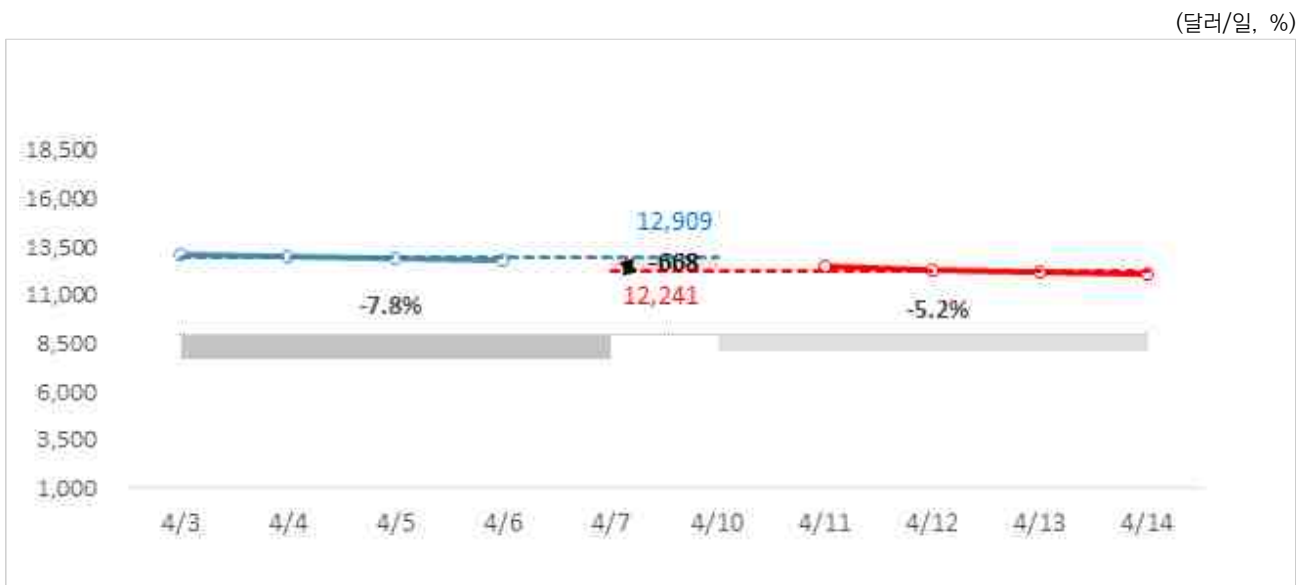
(운임) 전주 대비 5.2% 하락한 12,241달러/일 기록

- 부활절 연휴 영향 지속으로 성약 활동이 둔화함

(동향) 인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의 국영 화력발전공사인 NTPC(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가 인도 자체에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4.5GW 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함. NTPC는 Lara와 Singrauli에 각 1.6GW 급 1개소, Meja에 1.32GW급 1개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예정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4월 2주	4월 1주	전주대비차이	
BSI		1,113	1,174	▼ -61	-5.2 %
스팟운임(10TC)		12,241	12,909	▼ -668	-5.2 %
용선료	6개월	16,000	16,375	▼ -375	-2.3 %
	1년	15,500	15,875	▼ -375	-2.4 %
	5년	12,500	12,500	- -	- %
FFA	5월물	14,830	15,728	▼ -898	-5.7 %
	3분기물	16,208	16,706	▼ -498	-3.0 %
	23년	13,368	13,539	▼ -171	-1.3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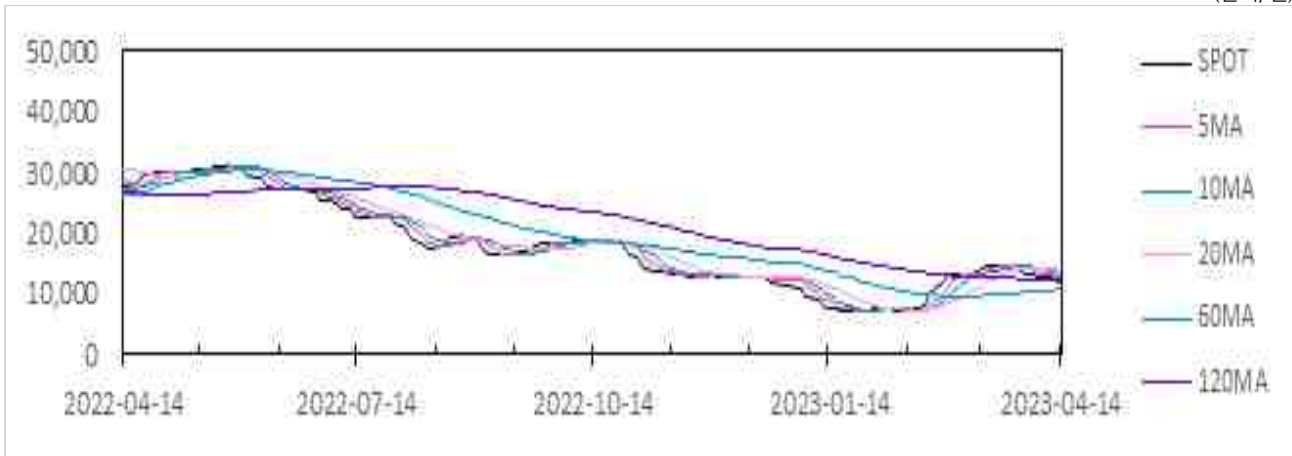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76.7p 상승한 1,033.7p를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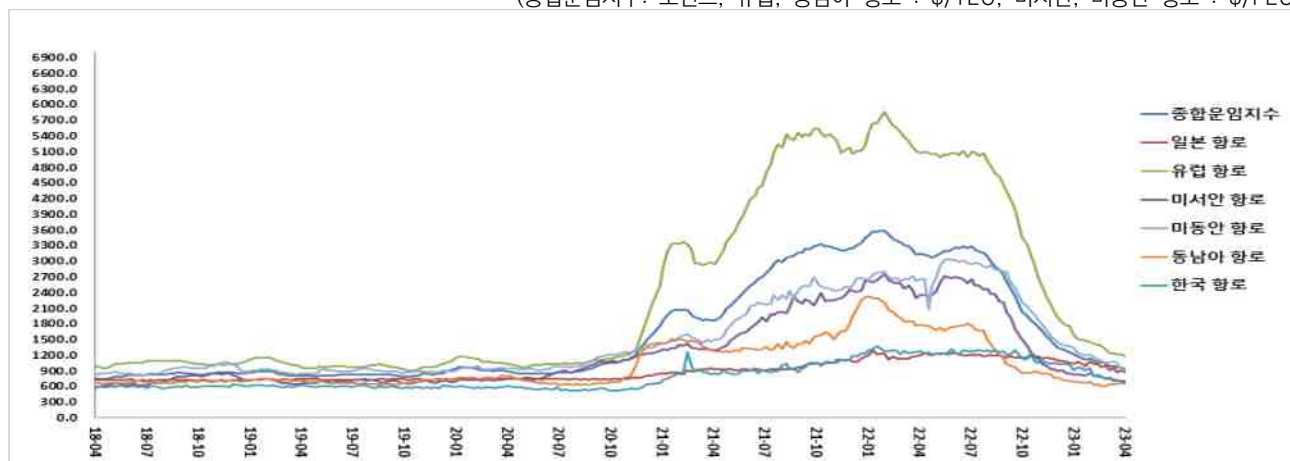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SC 계약 갱신 시기에 임박한 아시아-북미 항로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주 대비 76.7p 상승한 1,033.7p를 기록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올해 2월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아시아-태평양 헤드홀 노선 물동량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1,220만 TEU를 기록함(CTS)
- 올해 2월 글로벌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p 하락한 101p를 기록하였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아직 31p 높은 수준임(CTS)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4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운임	종합운임지수	SCFI	1,034	77	907	1,061	973	1,107	3,410
	유럽항로		871	-6	863	1,050	919	1,047	4,846
	미서안항로		1,668	376	1,148	1,668	1,296	1,418	5,656
	미동안항로		2,565	418	2,010	2,845	2,426	3,096	8,514
	한국항로		171	-13	171	238	207	225	321
	일본항로		332	3	317	927	372	281	320
	동남아항로		191	-13	150	199	174	189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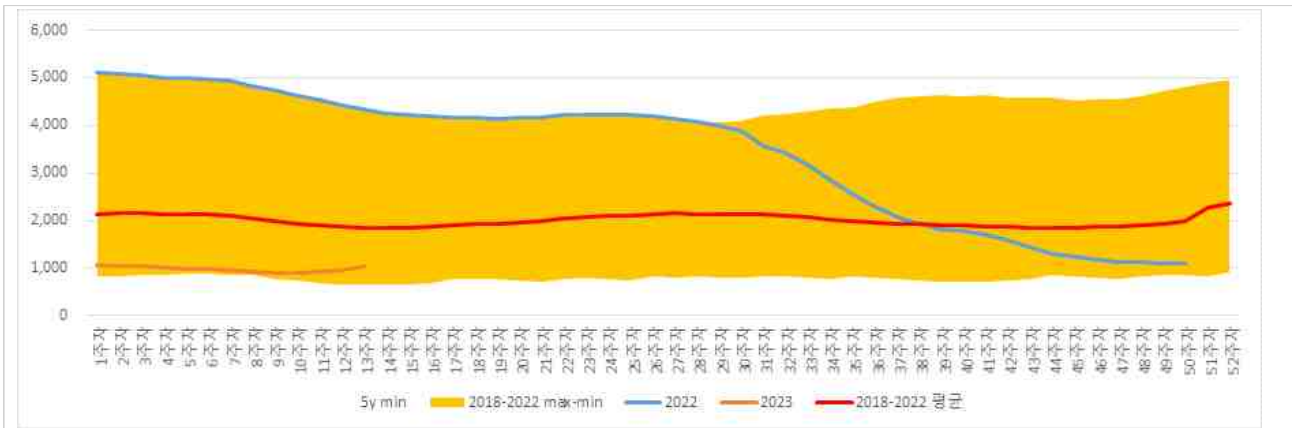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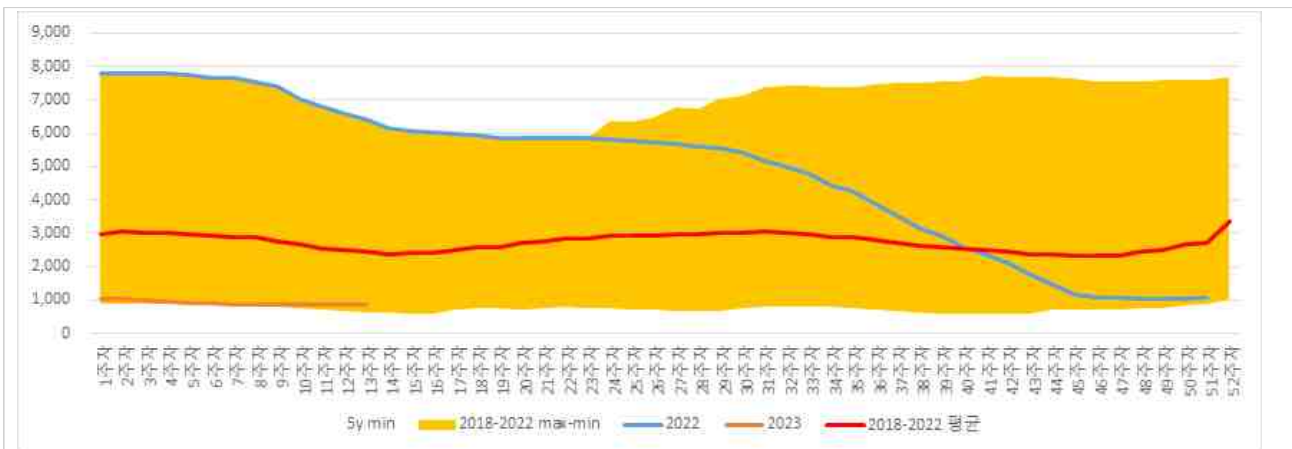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4월 3주('23.4.17~'23.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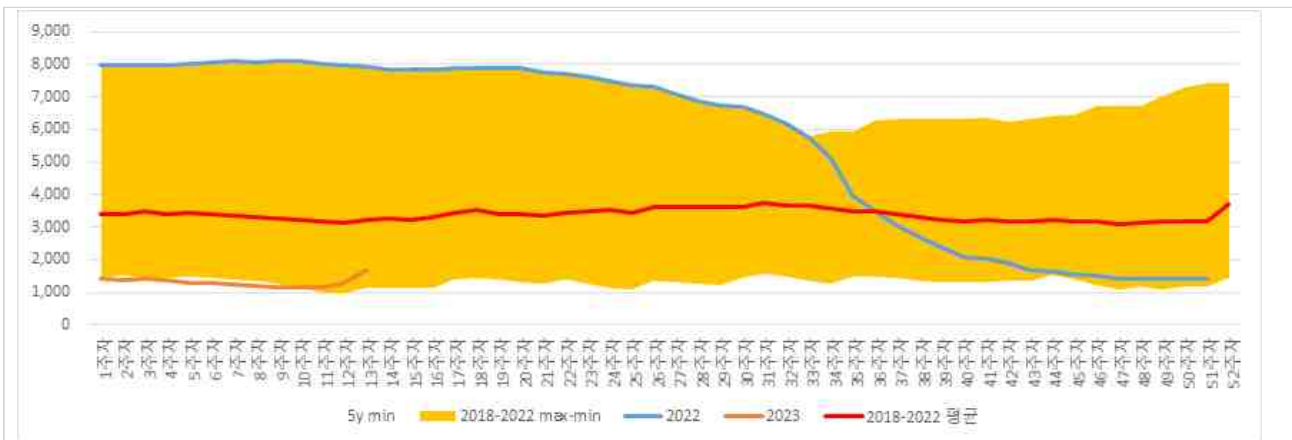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 대비 15.6p 하락한 52.6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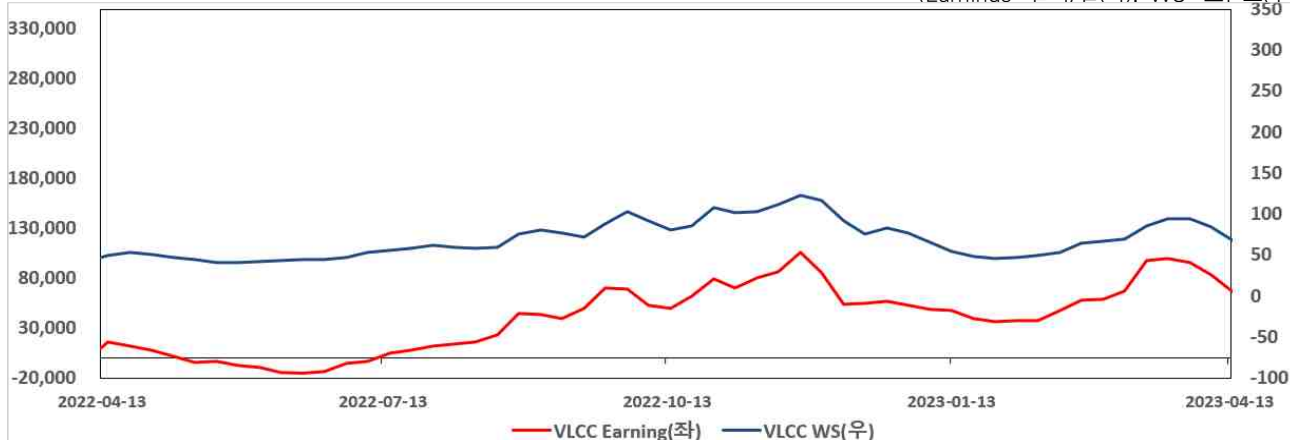
구분	4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52.6	▼	15.6	22.9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45.0	-	-	-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72.0	▲	2.0	2.9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68.5	▼	1.5	2.1 %

(동향) 경기 침체 장기화, OPEC+ 감산 돌입 등으로 원유시장 변동성 확대되며 시황 약세 지속

-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OPEC+ 감산 계획 등으로 인한 원유 수요 둔화 현상이 미해소되고 있으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면서 유조선 운임도 약세가 지속됨
- IEA는 월간 시장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OECD 원유재고가 202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원유 소비국들의 재고가 감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나, OPEC+의 감산이 결국 세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함. 이는 곧 원유 소비 둔화로 연결되어 유조선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4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53	16	46	95	65	32	123	63
항로(TD3C)	평균 수익	52,891	1,563	16,766	97,526	47,454	24,517	101,230	16,685
VLCC	1년 용선료	42,500	3,500	38,000	50,000	42,183	15,000	47,500	25,644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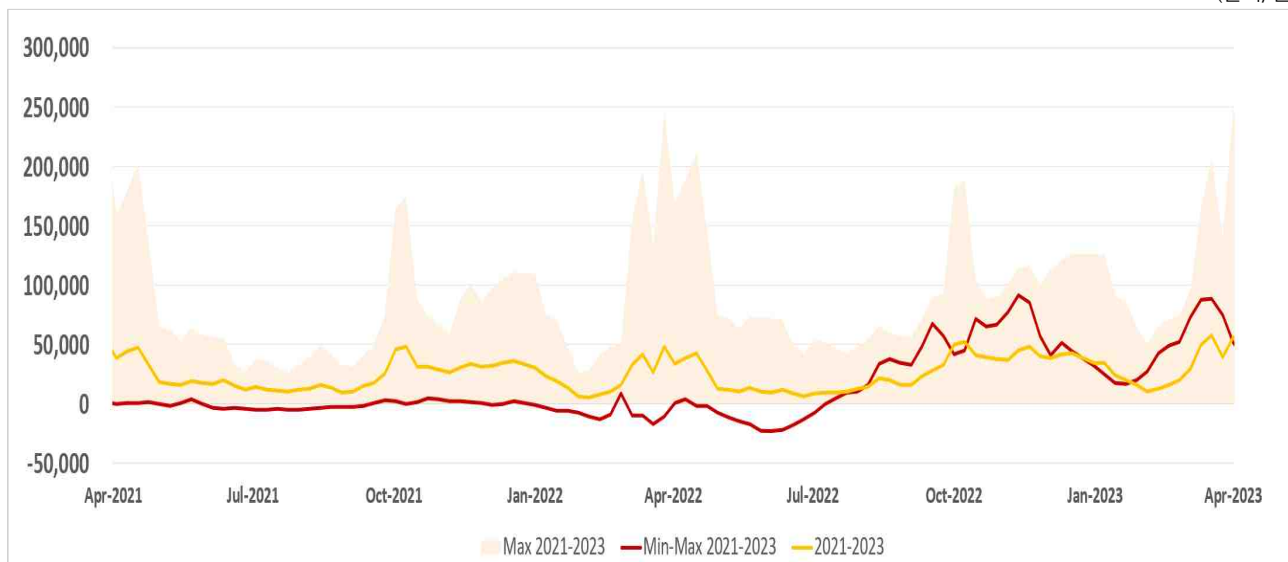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은 전주 대비 22.7% 수준으로 2주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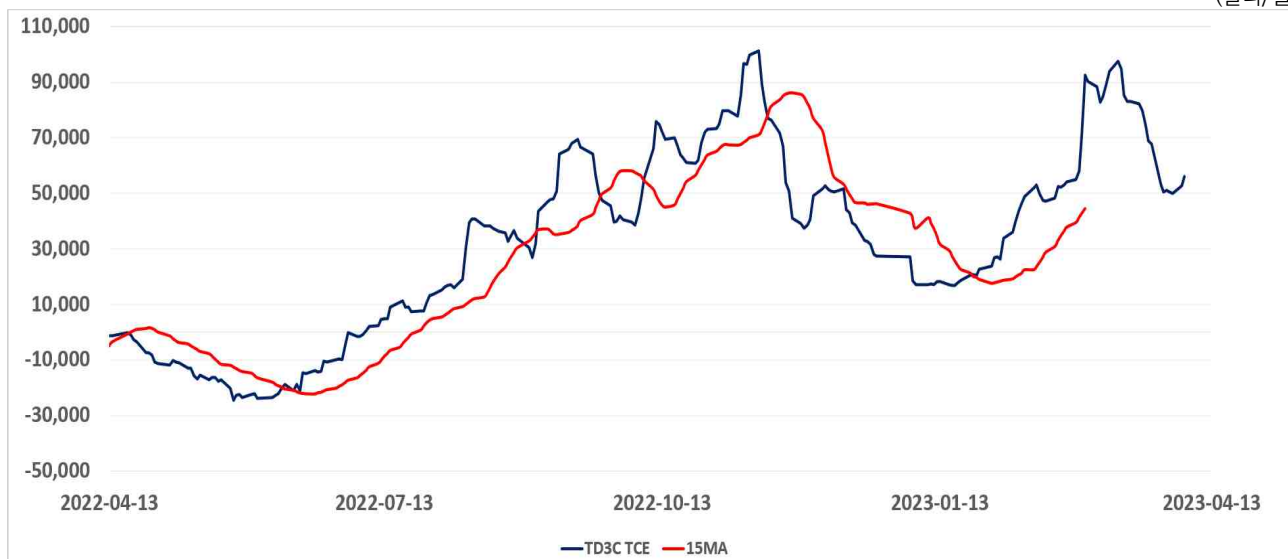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전주 대비 10%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하방압력이 작용 중인 것으로 보임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I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 대비 10.9p 상승한 216.7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보험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4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216.7	▲	10.9	5.3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160.0	▼	15.0	8.6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00.0	▼	10.0	4.8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220.0	▲	10.0	4.8 %

(동향) 보험세 지속 중이나 계절적 요인, 경기회복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 운임 상승 전환 기대

- 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나프타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석유제품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해 전방 수요 회복세 또한 아직 미미함. 이에 중국이 석유화학 내재화를 위한 자국 내 증설로 공급 과잉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성장을 저하와 중국의 석유제품 자급률 상승 등이 해상운송 수요 감소를 야기하며 시황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수요 증가, 드라이빙 시즌 도래에 따른 이동수요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석유제품 소비가 상승하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4월 2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217	11	175	266	212	120	447	278
	평균 수익	41,041	2,226	21,713	50,916	34,366	6,216	72,180	38,274
MR	1년 용선료	31,000	0	26,000	31,250	28,667	12,357	30,250	20,570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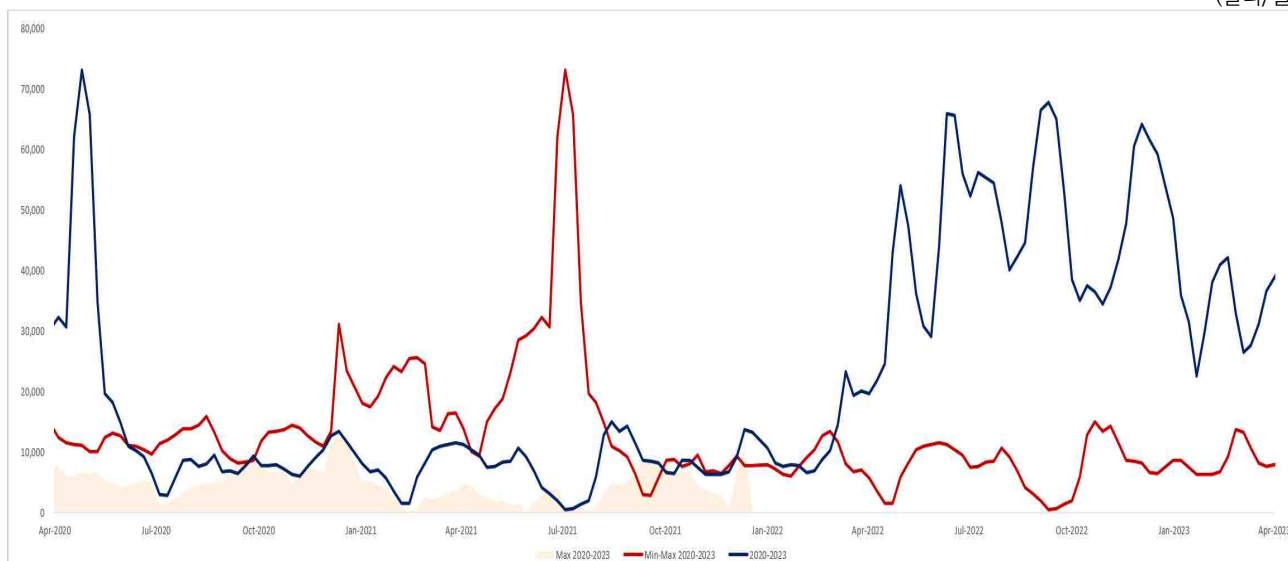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전주 대비 약 6% 상승했으며, 3월 2주 차 이후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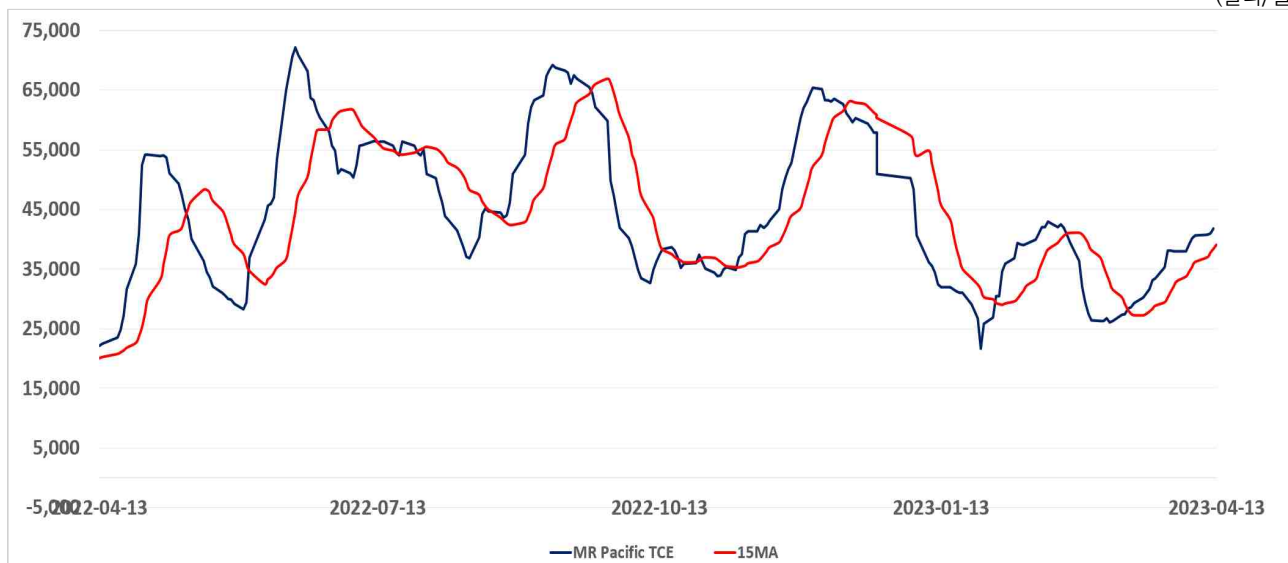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은 3월 이후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보이며, 전주 대비 상승보합세를 나타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건화물 중고선가 지수는 24.1로 전주와 동일함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컨테이너 중고선가 지수는 58.5로 전월과 동일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23.04.01~'23.04.14)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53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Asian Triumph	2012	56,532	DWT	2023-04-14	15.00	U-Ming Marine	Undisclosed interests
Bulk	Chris	2010	56,838	DWT	2023-04-14	13.50	Seadar Shipmngt.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Di Matteo	2009	46,646	DWT	2023-04-14	26.00	Stamford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Global Royal	2022	61,211	DWT	2023-04-14	34.25	Dowa Line Co Ltd	Greek interests
Tanker	Maersk Michigan	2003	47,047	DWT	2023-04-14	14.00	Maersk Line Limited	Undisclosed interests
Bulk	Sparta*	2006	10,315	DWT	2023-04-13		Intresco Ltd	Undisclosed interests
Bulk	Salvinia*	2007	10,407	DWT	2023-04-13		Intresco Ltd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CF Aurora	2009	31	Accommodation	2023-04-12		Chevalier Floatels	Clients of Oceanica Offshore
Container	Calais Trader	2001	2,524	TEU	2023-04-11	8.15	Lomar Shipping	Chinese interests
Gas C'rier	Gaz Liberty	1997	79,527	cu.m.	2023-04-11		Naftomar Shpg & Trdg	Middle Eastern interests
Container	N/B Yangzi Xinfu SB YZJ2015-2078	2023	1,781	TEU	2023-04-11		StarOcean Marine	Clients of Norse Shipholding
Offshore	Pacific Zonda	2024	12,000	Water Depth	2023-04-11		Samsung HI	Clients of Eldorado Drilling
Container	TVL Aeon	2023	1,930	TEU	2023-04-11		Kanway Line	Clients of RCL
Bulk	All Star Atlas	2014	63,500	DWT	2023-04-08	24.50	M/Maritime	Undisclosed interests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Haut Brion	2011	57,075	DWT	2023-04-08	14.50	Ningbo Zrich	Undisclosed interests
Bulk	Universal Bangkok	2012	56,729	DWT	2023-04-08		Universal Marine BV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Coastal Supreme*	2018	85	LOA	2023-04-06	65.20	Coastal Offshore	Undisclosed interests
Offshore	Coastal Supreme 2*	2020	85	LOA	2023-04-06		Coastal Offshore	Undisclosed interests
Bulk	Stella Ada	2011	180,223	DWT	2023-04-05	25.50	Cara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Black Forest	2003	32,751	DWT	2023-04-04	8.00	Pacific Basin Shpg	Chinese interests
Bulk	Eldoris	2011	36,075	DWT	2023-04-04	16.00	Serenity Ship Mgmt	Undisclosed interests
Bulk	En Ocean	1997	27,865	DWT	2023-04-04	4.50	Hubei Qin Tai Ltd	Undisclosed interests
Bulk	Geat Wisdom	2000	45,659	DWT	2023-04-04	7.00	Smart-Tran s Shpg	Clients of Liliang Shpg
Bulk	MP Atlantic	1994	22,035	DWT	2023-04-04	3.00	Minh Phu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Sanmar Songbird	2003	47,094	DWT	2023-04-04	15.00	Sanmar Group	Undisclosed interests
Bulk	Bulk Japan	2006	82,951	DWT	2023-04-03	15.30	C Transport Maritime	Greek interests
Tanker	Nautical Deborah*	2018	75,343	DWT	2023-04-03	153.00	TRF	Clients of Advantage Tankers
Tanker	Nautical Janine*	2019	75,111	DWT	2023-04-03		TRF	Clients of Advantage Tankers
Tanker	Nautical Sarah*	2019	75,144	DWT	2023-04-03		TRF	Clients of Advantage Tankers



중고선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Magic Moon	2005	76,602	DWT	2023-04-02	13.95	Castor Maritime	South Korean interests
Bulk	Glovis Maine	2013	56,686	DWT	2023-04-01	15.00	Pacific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3.04.14.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4월 평균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18	18	18
유조선(5년)	VLCC	100	0	100	100	100	100	70	95	8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20	0	20	20	20	20	21	56	4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	-34	34	33	34	33	34	37	36
유조선	VLCC	-	-120	120	120	120	120	114	120	118
컨테이너선	Sub-Panamax	-	-42	42	42	42	42	40	43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84	22	473	367	484	408	354	689	512
	Singapore	505	22	493	378	505	526	374	774	529
	Korea	526	16	517	439	526	476	418	785	581
	Hong Kong	507	18	498	421	507	462	414	804	554
VLSFO	Rotterdam	593	4	591	528	600	570	526	980	729
	Singapore	623	19	613	560	695	618	599	1,138	804
	Hong kong	636	9	631	574	690	631	606	1,189	818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150	-3	153	-	162	143	0	195	143
연료탄 (\$/Tonne)	국제價	130	0	117	-	133	120	-	141	124
	중국産	146	0	131	-	149	135	-	193	142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	-	-	758	146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2525	0	331	-	371	88	-	530	119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501	1501	1504	1,420	1,544	1,504	1,344	1,769	1,538
	밀(국제)	683	683	680	662	792	723	729	1,425	905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